평생학습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학습력 강화

홍승오 | 충남다문화지교육센터장

해가 갈수록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세계화로 인하여 지식이 폭증하고 있으며, 국가단위의 응집성이 약화되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총체적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제가 생성되고 있으며, 이 같은 사회문제의 극복과 지식기반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적 · 개인적 수준에서의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증대되게 되었다.

특히, 지식기반사회 및 지식기반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경제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새로운 지식생산과 지역문화 창달이 요청되고 있음을 물론, 이에 따라 지식 창조의 주체로서 인간의 학습에 대한 관심과 지역 문화 자원의 창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교육은 학교교육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평생학습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평생학습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나 지역사회 모두가 실천해야 하는 당면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평생학습은 한 도시 내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의 사회적 상황과 여건에 따라 자신이 필요로 하는 학습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교육시설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학습자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지역 평생학습 기반 정비라는 관점에서 시급한 일은 학교교육기관과 평생교육기관 및 일반 지역사회자원을 망라하여 교육자원을 조사, 발굴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교육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한 지역학습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는 학교를 포함한 모든 평생학습 관련 기관 및 시설, 단체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고, 시설의 효율화를 위해서 공유화하는 것이다. 즉, 교육기능의 확산과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하나의 시설을 한 시내(市內)에서, 혹은 시(市)간, 시와 도(道) 간에 공유하는 것이다. 또한, 평생교육시설과 직업훈련기관, 스포츠 및 문화시설, 도서관 등의 복합시설화 및 유아,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등과 같은 대상 중심 시설의 복합화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지역의 평생교육 연계 및 협력 체제는 그것을 구성하는 주체가 학습 지원에 유용한 교육자원(educational resources)을 가지고 있을 때 성립된다. 이를 전제로 서로 다른 교육조직 간에 서로 보유하고 있는 교육 자원들의 상호 교환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충남평생교육정보센터, 2006).

이와 같은 좋은 예로 호주의 학습도시 에블린(Mt. Evelyn)은 지역의 다양한 부분간의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고무(鼓舞)하고 지역 주체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역민의 학습요구를 면밀히 분석하고 학습기회와 인프라스트럭처를 확대함으로써 기술을 발전시키고, 네트워크와 상호작용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민들의 기술력을 향상시켜 지역경제를 성장시키고 있다. 영국의 경우, 노팅검(Nottingham), 뎃포드(Thetford), 노위치(Norwich), 에딘버그(Edinburgh), 리버풀(Liverpool) 등 40여개의 학습도시들은 상호간의 사업추진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교환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도 학습지역프로젝트에 대학, 지역노동사무소, 지역상공회의소, 시민대학, 교육문화시설 등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 및 참여하여 지역의 학습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한 지역에 존재하는 평생교육 기관들이 협력관계라기 보다는 사업이나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서로 경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특히, 행정적인 계열이 다르면 그 정도는 더욱 심각하다. 오늘날은 무 경계의 시대이다.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는데 평생교육관련 시설들간의 네트워크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평생학습네트워크 성공을 위한 10대 원칙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 간의 공동 이슈나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다. 둘째, 원활한 네트워크가 구축되기 위해서 현실적인 예산을 편성한다.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동사업을 할 경우에는 각 기관의 분담금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셋째, 관습적인 이해관

계를 존중한다. 각 기관의 역사 및 구조, 가치, 지도력 등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한다. 넷째, 서로가 공동의 관심사와 동의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섯째, 네트워크 사업의 중심에서 논의한다. 중심이 되는 사업을 논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되면 주변적인 과제로 확산시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여섯째, 각 기관들이 기여할 수 있는 점은 다양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기관들은 자기 기관의 단점을 보완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다. 각 기관이 지니고 있는 장단점을 바르게 평가해야 한다. 일곱째, 모든 기관의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기관이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 여덟째, 가시적인 성과를 획득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각 기관들이 스스로 현실적이고 계측 가능한 결과를 볼 때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아홉째, 안정적인 협의체를 구성한다. 열 번째, 명성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 사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명성이 각 기관에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이 지역사회의 인정은 구체적으로 교환되는 가치와 함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이러한 원칙들이 수행될 때 한 기관이 개별사업을 추진하면서 점(点)적으로 활동하던 것을, 평생교육사업을 통하여 여러 기관이 종합적으로 네트워크 되면서 면(面)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의 성과는 전략적 네트워크에 얼마나 전념하여 결과를 내느냐 하는데 있다. 이 같은 의식의 개혁이 없는 한 지역의 평생교육 네트워크는 동상이몽(同床異夢)일 뿐이다. 이제는 각 평생교육 기관단체가 제한된 고객을 서로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 평생학습 분위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교학상장(教學相長)을 실천하고,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참고문헌

1. 충남평생교육정보센터, 2006, 현장에서 보내는 평생학습 실천 노하우
2. 한국교육개발원, 2005, 지역혁신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매뉴얼
3. 한국교육개발원, 2007, 평생학습도시 성공전략 길잡이
4. 한국교육개발원, 2007, 평생학습도시 가이드북